

식탁물가 폭등... 장보기 겁나네

배추·갈치값 사상 최고...봄철 먹을거리도 급등세

한파·폭설에 출하량 급감... 농수산물값 치솟아

채소, 수산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 갈치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배이, 주꾸미 등 봄철에 즐겨 찾는 먹을거리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농산물 작황과 수산물 어획량이 좋지 않은 데다 3월 들어서도 날씨가 안 좋아 공급량까지 줄어든 결과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상추(상품·1kg) 값은 21일 800원으로 한 달 사이에 100원이나 올랐으며 전년(400원)보다 2배나 비싸졌다.

꽃고추(상품·100g)는 3월 현재 1천500원으로 1년 전(820원)보다 82.9%나 급등했다. 한 달 전 940원만던 것이 59.5%나 올랐다.

대파(상품·1kg)는 2천500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78.5%나 급등했고, 배추(상품·1포기)도 4천원으로 전년보다 60%나 상승했다.

배추 외에 봄철 식탁의 단골 메뉴인 냉이, 달래 등 봄나물 값도 올랐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팔리는 냉이(100g)는 880원으로 일주일 사이 12.8%가 올랐으며, 달래(100g)는 1천180원으로 전주보다 9.2%가 뛰었다.

또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어부들의 조업일수가 줄면서 갈치, 주꾸미 등 수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갈치값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광주지역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갈치는 한 마리에 5천500원으로, 1년 전보다 70%가량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의 갈치값은 2001~2005년 3천500원, 2006~2008년에는 2천500원대였고, 작년 3월에는 3천300원대였다.

봄철 식탁에 많이 오르는 주꾸미(100g)는 2천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8.3%가 올랐다.

과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참외(1.2kg)는 9천800원으로 2주 사이 1

2010. 3. 21	2009. 3. 21
상추(상품·1kg) 800원	400원 (200%)
꽃고추(상품·100g) 1500원	820원 (82.9%)
대파(상품·1kg) 2500원	1400원 (78.5%)
배추(상품·1포기) 4000원	2500원 (60.0%)
시금치(상품·1kg) 3000원	2000원 (60.0%)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인문)상승률〉

천820원(22.8%)이나 뛰었다. 또 칠레 지진의 영향을 받은 수입포도(1상자) 값은 7천480원으로 2주 사이 15.4% 상승했다.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값만 환율하락의 여파로 25%가량 떨어졌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겨울의 한파와 폭설 등으로 채소와 수산물 산지가격이 크게 올라 식탁물가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해 매화에 취하다

21일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 농원에서 열린 '제2회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서 상춘객들이 만개한 매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보해(주)는 이번 축제에 맞춰 20일 같은 장소에서 '제9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협, 농산물 유통개선 현장지원단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22일부터 농산물의 산지유통 사업 강화를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전병덕 지역본부 경제본부부장을 단장으로 3개반으로 편성돼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운동의 목표는 산지유통 체계를 개선해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지원단은 또 현재 75개인 전남 지역 공선출하회(공동선별·출하 조직)를 127개로 확대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공선출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망을 관리하기 위한 회원제 출하조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종목별 양극화 현상 뚜렷

외국인 매수세 주목해야

최근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변수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국내증시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유일한 매수주체로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금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달러화의 약세가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통화국들의 저금리 기조가 연장되고 있다. 한동안 이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에 편승하는 주식선정이 여전히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8일에 국내경기선행지수의 하락반전이 발표된 이후로 코스피지수는 4.4%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3조5천억원의 사들여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1일 평균 순매수 강도는 월별 사상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의 1일 평균 순매수에 버금간다.

물론 이들의 직접적인 매수 동인(動因)은 남유럽 사태의 일단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반전이 꼽힌다. 그러나 단지 달러화가 싸졌다고 해서 경기성장세가 꺾이는 국가에 들어와 위험자산인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일 리는 없을 것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전망을 배경으로 한 선제적 매수 성격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및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살펴 보면 이들이 철저히 수출주에 집중하고 내수주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분의 부진세가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아직까지도 국내경기를 수출 중심의 '외발자전거식 회복세'로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이외에 매수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시선이 곧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을 유지한다면 지수가 상승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도 종목별로는 수익을 차별화 현상이 더 심화하는 양극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KOSPI지수의 방향성이 위쪽이나 아래쪽이냐에 주력하는 거시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 흐름에 집중하는 미시적인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 휘발유값 8 당 평균 1706원

1년5개월만에 최고

휘발유 값이 또다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를 돌파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8 당 1천706.57원으로 2008년 10월 15일(1천700.71원)이후 1년5개월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류세 감면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저점했던 2009년 1월 8 당 1천270원대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8 당 400원 이상 올랐다.

5개구별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동구가 8 당 1천716.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 1천715.00원, 광산구 1천704.00원, 북구 1천703.00원, 서구 1천701.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일 보통 휘발유 평균 가

격이 1천687.22원,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1천471.5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 20일 8 당 1천700.25원으로 1천700원대를 돌파했다. 자동차용 경유는 8 당 1,478.05원을 기록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유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bf.com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82-9200

홍성점: (662) 227-9970

익산점: (063) 051-2422

초대속신으로 빠르게 크루즈로 편안한 새로운 제주여행

초대속 팅크돌핀호 + 크루즈 한바퀴

제주도 여행의 새로운 시작

초대속 팅크돌핀호 + 크루즈 한바퀴

크루즈 타고 제주여행

제주도 여행의 새로운 시작

크루즈 타고 제주여행

꽃보다 아름다워 풍사행동

제주도 여행의 새로운 시작

꽃보다 아름다워 풍사행동

제주여행 패키지 1박2일 178,000원

제주여행 패키지 2박3일 188,000원

상임대표이사 겸 광주점장 이

김영호

TEL: 062-227-9940

상무이사 겸 1차

김영호

TEL: 062-227-9940

총무이사 겸 2차

김영호

TEL: 062-227-9940

상무이사 겸 3차

김영호

TEL: 062-227-9940